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난중일기를 읽고

박혜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잘 아니?”

친구들이 종종 내게 묻는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그냥, 한국사를 좋아하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한국사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순신장군의 위인전을 읽었을 때였던 것 같다.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했고 우리나라에 그런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나는 곧바로 어린이를 위한 난중일기를 찾아 읽었고, 도서관에 있는 이순신 관련 책들을 모조리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점 다른 역사인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나의 한국사 사랑으로 이어졌다. 내가 국사 과목을 좋아하고 잘 하게 된 것도 순전히 이순신 장군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나는 어린이를 위한 난중일기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드디어 교감 완역 난중일기를 읽었다. 그리고 난중일기의 감동을 안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거제도에 여행을 갔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제도는 내게 정말 굉장한 섬으로 다가왔다. 한산도 앞바다를 볼 수 있었고, 옥포해전과 칠천량해전이 있었던 바다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칠천량 바다. 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사백여년 전 수많은 조선 수군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때, 조선 수군의 대패 소식을 전해들은 이순신장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순신장군은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듭 생각할수록 분하여 간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16일 새벽에 수군이 기습을 받아 통제사 원균과 전라 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및 여러 장수들이 다수의 피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는 것이었다. 듣자 하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칠천량 바다를 바라보며 그 때 일을 상상만 해 볼 뿐인 내 마음도 이리 안타까운데, 아끼는 부하들을 잃고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직접 마주쳐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런데 똑같은 수군을 거느리고도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을, 원균은 대패를 했던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들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훌륭한 지도자였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투 때마다 목숨을 바쳐 싸웠다.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런 장수들을 때때로 만날 수 있지만, 전쟁 중에도 쉬지 않고 매일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썼던 장수는 이순신 뿐이다. 일기를 쓰며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하루를 평가하며

내일을 계획했던 그 노력이 이순신을 세계 최고의 해군 장수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또한 일기 속에 슬픔도 분노도 아픔도 다 쏟아내며 스스로에게 솔직했던 그 진실함이 그를 부하들이 진정으로 따르는 진실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공무를 본 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몹시 아팠을 때도, 어머니의 죽음을 애통해할 때도, 아들 면의 죽음을 슬퍼할 때도, 바다에 나가 적과 싸우고 와서도 어김없이 일기를 썼다. 목숨을 건 전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조용히 일기장을 펼치고 먹을 가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때로는 날씨밖에 기록할 것이 없을지라도 이순신 장군은 매일같이 붓을 들었다. 그렇게 모인 하루하루의 기록이 난중일기라는 엄청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졌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한 것이다.

나도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계속 썼었다. 쓰기 싫고 귀찮아도 숙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일기였다. 그래서인지 중학교 와서 일기숙제가 없어지니 일기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처럼 매일같이 일기장을 펼치고 붓을 드는 일이 얼마나 강한 끈기를 보여주는 것인지 중학교 들어와서 새삼 느끼게 되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이순신 장군의 하루하루의 기록이 모여 난중일기라는 거대한 기록의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가 난중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나라와 백성을 깊이 사랑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낸 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서 좋았다. ‘맑음’이라고 쓰고 붓을 놓았던 그 날도 이순신 장군은 깊은 시름에 잠겨 나라와 백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도 이제 매일 일기장을 펼치며 나의 하루를 돌아보아야겠다. 나의 하루는 모여 어떤 바다를 이루게 될까.